

## 양과 질의 빈약함, 분야별 균형감 상실, 정부지원 확대해야

차배근\_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국제화’라고 하면 흔히 선진외국을 닮아 가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진정한 국제화란 우리 것을 국제적인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예컨대 우리의 학술지식이나 이론 등을 세계적인 것으로 만드는 것이 곧 국제화인데, 이를 위해서는 학자들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각종 학술지식과 이론 등을 열심히 개발해야 하고, 출판사들이 그것들을 출판, 세계에 널리 알려야 한다. 따라서 학술출판은 우리나라의 국제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 학술출판의 실태는 어떠한가?

최근 필자는 ‘2003년 문화관광부 학술부문 추천도서’ 심사에 그 심사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참여한 바 있다. 그러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소감들 중, 이번 <출판저널> 9월호 특집 주제인 ‘국제화 도약을 위한 학술출판의 역할’과 관련된 것들만 몇 가지 들어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로는, 우리나라 학술도서 출판실태는 아직도 양적 질적으로 모두 빈약하다는 것이었다. 연간 3만6,185종의 신간도서들을 발행(2002년 대한출판문화협회 통계자료)하는 세계 10위권 내의 ‘출판대국’에서 이번 2003년 문화관광부 학술부문 추천대상도서로 내놓은 책은 겨우 2,684종에 불과했다. 뿐만 아니라 그것들의 대다수가 대학교재나 총론 내지 개론적 도서들이었으며, 하나의 주제를 심도 있게 다룬 연구서들은 그리 많지 않았다.

둘째로는 번역도서가 많다는 느낌이었는데, 이번 학술

부문 추천대상도서 2,684종 중, 번역서가 모두 617종으로서 전체의 23퍼센트나 되었다. 물론 이는 학문의 국제교류라는 입장에서 볼 때는 바람직한 현상일 수도 있다. 하지만 국제교류란 쌍방적인 것이다. 외국에서 우리 학술도서를 얼마나 번역, 출판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우리가 외국도서를 번역한 것은 617종이나 된 반면 외국어로 발행한 것은 겨우 16종에 불과했다.

셋째로는 학술도서가 몇 개 특정 학문분야에 심하게 편중되어 있다는 점이었는데, 이번 학술부문 추천대상도서의 학문분야별 분포를 보면, 사회과학분야 도서는 모두 739종으로서 전체의 27.6퍼센트나 차지했다. 반면 순수과학 도서는 겨우 121종으로서 전체의 4.5퍼센트밖에 되지 않았다. 물론 이는 각 학문분야 전공자나 종사자 등의 수에 따른 차이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특정 학문에 대한 경시나 무관심 때문일 수도 있는데, 만약 그렇다면 이는 모든 학문분야의 균형적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넷째로는 학술출판사 수가 적을 뿐 아니라, 그 규모도 영세하다는 점이였다. 대한출판문화협회 통계자료에 의하면 2002년 말 현재 우리나라의 출판사 수는 모두 1만9,135개나 되나, 이번 문광부에 학술도서들을 제출한 출판사는 고작 376개(18개 대학출판부 포함)로서 전체 출판사들 중 2퍼센트에 불과하다. 또한 한 출판사에서 제출한 도서도 평균 7종이었는데, 이처럼 학술출판사들과 그 발행 도서의 종수가 적은 것은 학술도서는 영리성이 적어 출판을 기피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문화관광부는 ‘상업성은 적으나 지적 인프라의 핵심인 우수 학술도서를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출판의 질적 향상 및 지식기반을 확충,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우수 학술도서들을 선정, 그에 대한 지원사업을 벌여오고 있다. 하지만 지원비가 너무 적어 소기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학술출판의 국제화를 위해서는 우선 정부의 지원비를 대폭 늘려야 한다. ☐